

OECD 보건복지 이슈분석 및 대응, 국내 활용전략 수립 연구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9. 11. 18(월)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제 135차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참석

과제명

- [수탁 19-020-00] OECD 보건복지이슈 분석 및 대응 국제활용전략 수립 연구

출장기간

- 2019. 10. 16(수) ~ 2018. 10. 20(일).

출장지역

- 프랑스(파리)

출장자

- 정해식 연구위원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19/10/16(수)	프랑스(파리)			출장지 이동
2019/10/17(목)	프랑스(파리)	OECD본부	OECD 사무국 등	(회의1일차) 이주민 정책, 2021년 고용노동장관회의 의제 논의
2019/10/18(금)	프랑스(파리)	OECD본부	OECD 사무국 등	(회의2일차) 주거와 포용적 성장, 성인학습, 연금, 고용보호입법지수, 집합적 협상 논의
2019/10/19(토) - 2019/10/20(일)	인천, 세종			출장 복귀

가. 제135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개요

- 회의명 : 제135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정례회의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10.17~10.18. OECD 본부 회의장
- 주관기관 : OECD 사무국
- 핵심요지
 - 이번 회의에서는 이주민 정책, 청년 등의 주거와 노동시장 참여 관련한 포용적 성장, 성인학습을 위한 플랫폼 구성(이탈리아 사례), 비정형 근로의 증가에 대응하는 연금정책의 기본 방향 제언, 고용보호입법지수의 체계 변화, 집합적 협상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논의가 이뤄짐.
- 관찰 및 평가/건의
 - 이주민 정책,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대비하는 직업능력 정책, 청년 주거와 노동시장 정책은 국내 노동시장 환경에도 함의하는 바가 큼.
 -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 개선 등에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

□ 일정 및 의제

시간	안건제목	안건번호	정리
1st Day			
9:30-9:35	Item 1. Adoption of the draft agenda	DELSA/ELSA/A(2019)2	
9:35-9:40	Item 2. Approval of the Draft Summary Record	DELSA/ELSA/M(2019)1	
9:40-10:00	Item 3. Director's Oral Statement	DELSA/ELSA/RD(2019)5	
10:00-10:30	Item 4. ELSAC Mandate	DELSA/ELSA(2019)14	
10:30-10:45	Item 5. Colombia(콜롬비아 노동시장 및 사회 상황 개요 설명)		
10:45-11:15	- Coffee break		
11:30-12:30	Item 6. PWB Orientations	DELSA/ELSA(2019)13	
11:45-12:45	Item 7. Skills Centre activities and PWB Orientations		
13:00-14:30	- Lunch and meeting with the Bureau		
14:30-14:45	Item 8. Report back from the Chair of the Working Party on Migration		
14:45-15:30	Item 9. Migration Ministerial Organisation and draft issues for discussion	DELSA/ELSA(2019)15	
15:30-16:30	Item 10. Migration Policy Ministerial: outcome documents	DELSA/ELSA(2019)16	
16:30 to 17:00	- Coffee break		
17:00-17:30	Item 11. Presentation on the Global Deal		
17:30-18:00	Item 12. Proposal for a meeting of Employment and Labour Ministers in 2021	DELSA/ELSA(2019)18	
2nd Day			
9:30-10:30	Item 13. Housing Horizontal Project outline / Housing and Inclusive Growth	DELSA/ELSA(2019)17	보건 복지
10:30-11:30	Item 14. Skills for Jobs	ELSA/ELSA(2019)20	
11:30-12:00	- Coffee break		
12:00-13:00	Item 15. Pensions at a Glance: non-standard workers	DELSA/ELSA(2019)22	보건 복지
13:00 -14:30	- Lunch break		
14:30-15:30	Item 16.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Indicators	DELSA/ELSA(2019)23	
15:30-16:00	- Coffee break		
16:00-17:00	Item 17. Collective Bargaining Project Update		
17:00-17:30	Item 18. ELSAC work on Implementation (including update on SRSS activities)	DELSA/ELSA(2019)24	
17:30-17:45	Item 19. Election of Bureau		
17:45-	Item 20. Other Business	DELSA/ELSA/RD(2019)6	
CLOSE OF MEETING +			

나. (보건복지의제 1) 한 눈에 보는 연금 2019, 2장 비정형 근로의 형태와 연금

1) 주요내용

- 사무국은 지난 사회정책 작업반에서 제시되었던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9년 고용전망(2019 Employment Outlook)의 주요 결과에 기반하고 있음.
- 비정형 근로의 경향과 특징
 - 비정형 근로는 총고용의 25%를 넘어서고 있음. 시간제 근로는 2005년 전체 피용자의 9% 수준으로 늘어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시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 자영업은 2000년 17%에서 2017년 15%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업부분의 축소 등의 영향임.
 - 자영자 감소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형 근로의 등장으로 상쇄되고 있음. 새로운 형태의 일은 피용과 자영의 경계에 있으며, 이때의 독립노동자는 연금기여 또는 사회보장 기여에서 피용자보다 낮고, 이에 따라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을 유인하는 영향,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일을 아웃소싱하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주요한 현안과 발견
 - 자영업자는 피용자보다 노령 연금에 더 적게 기여하고 퇴직 할 때 연금을 더 적게 받음. OECD 15개 국가 평균으로 은퇴한 자영업자는 피용자보다 평균 22 % 낮은 공적연금을 받음.
 - 시간제 근로자는 비기여 연금, 최저 연금, 기여기반 기초연금, 확정급여에 기반한 기준임금 방식과 같은 재분배 메커니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렇지만 연금자격 발생에 필요한 최저소득 또는 최저기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간제 근로자가 연금자격을 확보하

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대부분 국가에서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연금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규칙과 일치함.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임시직 근로자, 청년 근로자, 계절 근로자, 견습생 또는 연수생에 대해 연금기여율을 낮추거나 연금 가입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주요 과제

-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문제: 자영자가 의무연금에 완전히 포괄되지 않음
- 자영자와 근로자를 다르게 처리: 자영자의 보험료 부과 소득 기반이 피용자와 다름
- 자영자와 피용자를 구분하는 고용계약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
- 새로운 형태의 일이 등장

○ 주요 정책 제안

- 1층과 2층의 연금제도간의 조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노동소득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
- 모든 형태의 노동 계약에 기여율과 연금 자격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
- 자영자와 피용자간의 기여 기반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

2) 논의 및 결과

○ TUAC

- 비정형근로자 보호에서 공적연금은 여러 제도 중의 하나이며 사적연금도 충분히 다뤄야 함. 사적연금에서 자격요건 획득기간 문제, 각

중 공제 등으로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간의 보험료 납입기반 차이가 있다는 점, 사적연금에서 노동자의 연금자격 이동성 문제를 다뤄야 함.

- 별도의 챕터가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젊은 노동자가 보다 비정형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며 이때 '선량한 관리자'와 관련한 문제가 더욱 불거지기 때문임.

○ BIAC

- 연금이동성 논의에서는 일자리간 이동성 뿐 아니라 산업 간 이동성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사적연금의 노사공동기금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채용확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적정수준의 노동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 활성화, 활동적 노화 개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연금제도와 고용창출을 동시에 생각할 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노령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국가

- 보고서가 다양한 사례 등을 언급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활용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칠레), 각국이 처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이라고 평가하였음(미국).
- 터키는 자료 정정(자영자의 소득 기반 및 보험료율이 피용자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였으며, 헝가리는 제한된 일정 기간을 주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
- (사무국) (BIAC의 의견에 대해) 자발적 가입자와 임시직 근로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3장에서 적립식 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

3) 관찰 및 시사점

- 우리 국민연금은 자영자를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논의에 크게 관련되지는 않음.
- 우리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사적연금에서 비정형근로자의 동일한 가입자격 문제제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의 퇴직연금이 장기근속자를 대우하기 위한 퇴직금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다. (보건복지의제 2) 주거와 포용적 성장

1) 주요내용

- 사무국은 적절한 주택의 성과 및 동향에 초점을 두고, 주거 배제 위험에 처한 그룹을 식별하고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 수단을 제시함
 - 보고서는 주거에 관한 수평사업(horizontal project)에 기여할 것이며, 대표단의 검토 후 정책 리포트로 발간될 예정임.
- OECD는 주거 정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주택가격은 노동이동 가능성과 관련되며, 청년 및 청년 가족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택사다리(housing ladder)가 필요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 in place)의 가능성과 관련됨.
- PWB 2019-20의 일환으로 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주택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적정하고 사회적인 주거에 대한 질문지(QuASH)를 2019년과 2020년에 50개 국가에 배포 예정(2019년 11월 27일 볼로냐에서 워킹 파티 예정이며, 홈리스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 공개 예

정)

- 홈리스, 사회주택, 적정 주거 정책, 장애인을 위한 주택 등에 대한 정책 보고서 발간 및 개별 국가의 주택 정책에 대한 리뷰(라트비아)
- 이러한 통합적 정책 접근과 전략 비전 제시를 통해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람.

○ 주요 현황

- 저소득 가구, 청년과 아동, 노인의 취약 가구에 집중해야 하며, 저소득 가구의 주거 비용이 높고 또한 지난 10년 동안 주거 비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주택 가격의 상승과 임대 비용의 증가). 주택에 투자하는 공공정책의 비율은 감소하고 주거수당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저소득 가구는 과밀하게 생활하며, 청년들의 주택 소유가 어려워지며 청년 홈리스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노인의 65%가 주택을 소유하지만, 집을 가지지 않은 노인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노인 홈리스의 증가 가능성이 있음.
- 지역간 격차 문제, 주거와 장기 요양의 관계, 주거와 자산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안

- 적정가격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시장 왜곡을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민간임대 시장을 개발해야 함.
- 저소득, 청년 가구, 노인의 주거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 논의 및 결과

○ TUAC

- 청년들이 정규적인 노동계약을 맺기 힘들고, 그런 이유로 집을 구하

기 어렵게 되는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평등 심화에 따른 주택 시장의 지속성장 저해 문제는 세대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주거분리의 문제, 임대료 관리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접근의 문제 등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BIAC

- 일자리와 주택 공급의 문제가 결합될 수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오스트리아

- 주택 비용과 더불어 에너지 비용 문제를 다뤄야 하며, 공공주택 및 사회주택에 대한 공공지출의 규모를 비교하는 자료가 추가되어야 하며, 최저임금과 주택 가격의 관계를 다룰 필요가 있음.

○ 스위스

- 임대시장이 큰 나라에서는 임대료 통제 등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다뤄졌어야 하며, 주택 가격이 이미 지역 간에 매우 큰 나라에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국가

- 한 국가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칠레, 아일랜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한 라트비아의 실험 결과를 리가에서 공유하기를 바라며(라트비아), 주거정책에서 사회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환경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코스타리카).

○ 사무국

- 제안된 여러 의견에 감사하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음. 집단의 주거 분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작업 결과들이 있으며, 각국의 주택 보유정책에서의 역사적 특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에너지 빈곤

의 중요성도 초기부터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3) 관찰 및 시사점

- 한국은 관찰 기간인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에서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주거관련 지출도 증가하는 국가에 해당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주택정책의 현황을 개괄적 수준에서 비교가능하게 제시하고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